

# 9월 월간보고서

방글라데시 12기 발로본두  
신유식  
임병준  
송누리  
정은혜



\* <발로본두>는 벵갈어로 '좋은 친구'라는 뜻입니다 \*

RaonAtti

일	년	화	수	목	금	토
				4 다카도착	5 Off day	6 Report 벵갈어 교육 방글라데시 OT
7 NCYB 방문 보순도라시티방문	8 벵갈어 교육 John집 방문 사바르교회방문	9 사바르youth만 남	10 벵갈어교육 National memorial park	11 다카 병원 보순도라시티방문	12 Off day 오루&리띠 만남	13 Report 비리시리도착
14 OT 다하파라 방문	15 Planning DAY	16 다하파라 OT 방글라 Class	17 Biplop 미팅 두르가푸르바자르 호스트선물전달	18 그린프로젝트현장 방문 방글라 Class	19 Off day 호스트선물전달	20 Report 자선축제참여
21 구호물품패킹	22 ← 구호물품전달	23 홍수 지역 방문	24 ← Y 정기 총회 준비	25 → 다하파라 방문	26 Off day 정기 총회	27 Report
28 YOUTH 미팅 'End poverty'	29 다하파라NFPE Biplop 미팅	30 다하파라NFPE				

## 1. 사바르 트레이닝 센터

- (1) 방글라데시 OT, 현지적응수업
- (2) National memorial
- (3) 현지 코디 집 방문
- (4) 사바르 Youth들과의 만남

## 방글라 DT

사바르 트레이닝 센터에서 우리는 방글라데시의 문화, 역사, YMCA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방글라데시는 자신들의 모국어를 지키고,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을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사와 비슷하다고 느꼈다. 또, 우리가 생각한 방글라데시보다 현실이 여러모로 열악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방글라데시 YMCA 설명을 들으며 어느 YMCA나 큰 틀은 같다고 생각했고, 설립 배경을 알게 되어 방글라데시 YMCA를 이해함에 있어 도움이 되었다.

## 벵골어 공부

간단한 인사말과 회화를 중심으로 한 벵골어 교육을 받았다. 단어보다 문장을 배우서 훨씬 유용하게 사용하였고 이해하기 쉬웠다. 배운 말을 이용해 바로 대화를 할 수 있어서 공부가 재미있었다.



National  
memorial  
park

방글라데시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기념 공원이다. 화려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수수했고, 건축물은 굉장히 아름다웠다. 다만 외부 활동을 할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다 보니, 긴장이 많이 되곤 한다. 이로 인해 더 자세히 둘러 보지 못한 점은 아쉽다.



## 현지 코디 집 방문

추석 당일, 우리는 현지 코디네이터인 John의 집에 방문하였다. John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고, 우리의 현지어 실력을 칭찬해 주셨다. 추석이라서 한국 생각이 많이 나고, 집이 그리웠었는데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가족의 정을 느끼고 올 수 있었다.



사바르  
Youth들과  
만남

현지 코디네이터인 John의 교회에 가서 Youth들과 시간을 보냈다. 처음엔 이름 외우기 게임을 하면서 서로를 알아갔고, 같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가까워졌다. 다음날, 교회에서 만났던 Youth들이 training center를 방문했다. 서로의 노래도 가르쳐주고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다. 점심식사도 함께 했는데, 우리가 손으로 먹는 것을 보더니 자신들도 한국에 가면 수저를 써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했다.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따뜻하게 다가와 준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2. 비리시리

(1) 다하파라 NFPE & Clinic

(2) 비리시리 YOUTH 활동

(3) 홍수

다하파라  
NFPE

우리가 지내고 있는 비리시리 YMCA에서 한시간 정도 자전거를 타고 가면 다하파라 대안학교에 도착한다. 정규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비리시리 YMCA에서 설립한 대안학교이다. 우리는 일주일에 3번 이 곳에서 교육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영어 — 임병준  
영어 애니 — 정은혜  
수학 — 신유식  
체육, 예능 — 송누리

	월		화		목
	30분	30분	30분	30분	1시간
Class 1	영어	영어애니	수학	체육	예능
Class 2	수학	체육	영어	영어애니	

## 다하파라 클리닉

다하파라 클리닉은 NFPE와 함께 운영되고 있다. 처음에는 말라리아와 풍토병 예방을 위해 설립 되었으나, 현재는 말라리아감염률을 많이 낮춘 상태이며 비리시리 YMCA에서는 서베이를 통하여 다음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이곳에서 '틸라파라'와 '바담바리' 지역 주민에 대한 서베이를 진행함으로써 추후 YMCA의 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비리시리  
Youth  
-벵골어 class

비리시리 도착 후 Youth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특히 정기적으로 Youth들을 만나 벵골어를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서로 대화를 하면서 언어를 배우게 되니 언어를 빠르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으며 수업을 통해서 Youth들과도 관계형성을 할 수 있었다.

사바르에서는 방글라데시 공용어인 벵골어를 배웠는데 Youth들에게 배우니 가로어과 벵골어 두 가지 언어를 배울 수 있었다. 또한 가로어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다.

비리시리  
Youth  
-End  
poverty

벵골어 class 이외에 우리는 Youth들과 함께 End poverty를 함께 의논하는 자리를 가졌다. 진주에서 준비해온 캠페인을 함께 공유하고 지금 현재 비리시리 지역에서의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은 무엇이 있으며 현재 어떤 문제점이 가장 두드러지는지 들을 수 있었다. 현재 비리시리는 술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술을 중점적으로 다루 볼 예정이다. Youth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비리시리의 현상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우리가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또 추후 활동을 위한 정보들을 많이 듣고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비리시리  
Youth  
- 정기총회

비리시리 YMCA에서 정기총회가 진행되었는데 우리는 자원봉사자로 Youth들과 함께 행사의 진행을 도왔다.

행사 전날에는 YMCA를 정비하는 클리닝 활동을 하고 당일 날은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볼 수 있었다 .



## 홍수

8월에 방글라데시 전 지역에 큰 홍수가 일어났었다. 비리시리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비리시리 YMCA에서는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활동을 진행하였고, 우리도 함께 참여하였다. 이후 2차 홍수가 발생하여 현장을 직접 답사하였다.



홍수  
— 난





홍수  
- 길



홍수  
- 집



### 3. 생활

## 자선축제

여학교에서 크게 열리는 자선축제에 참여하였다.

축제에 참여하여 많은 방글라데시 음식도 보고 먹을 기회를 가졌다. 또, 비리시리 YMCA에서 보지 못한 Youth들을 만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 호스트선물

전 기수에게 받은 호스트 선물을 나눠주기 위해서 Youth들과 함께 호스트 집을 방문하였다. 이곳 저 곳을 가면서 전 기수 단원들의 부모님들도 만나 볼 수 있었고 함께 이야기 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 '우리는 어떤 집으로 호스트를 가게 될까' 궁금증과 설렘도 함께 느끼게 되었다. 가져온 선물들이 무사히 호스트 집에 전달이 되어서 감사한 날이었다.

축구

매일 저녁 남자 Youth들과 함께 축구를 하고 있다. 처음에는 YMCA에 자주 오던 Youth들과 축구를 했는데 점점 소문이 나면서 평소 보지 못했던 Youth들까지 와서 함께 참여하고 있다. 아직 스포츠 클럽을 개설 하지 않았지만 개설 된다면 활발히 진행 될 것 같다. 또한 축구 하나만으로 많은 Youth들을 만나고 관계형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클럽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 지역방문

현지 코디네이터인 루벨과 YMCA에 자주 오는 Youth들과 함께 두르가푸르 바자르, 슘상강을 자주 가고 있다.

YMCA안에 있을 땐 밖이 궁금하고 답답하기도 했는데, Youth들과 함께 나가서 지역을 둘러보니 지역에 대한 이해도 생기고 궁금증이 해소되었다.

또, 처음에 나갔을 때는 걱정을 했는데 다하파라를 가고 자주 시장을 가면서 이제는 낯선 공간이 주는 긴장감보다는 재미와 편안함을 느낀다.



## Youth와 관계형성

아직 Youth활동인 클럽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Youth들이 YMCA로 찾아오고 우리의 시간의 대부분을 Youth들과 함께 보낸다.

처음에는 차를 마시고 방글라어를 배우는 것에 끝이 났다면 이제는 함께 이야기를 하고 기타를 치고 노래도 부른다. 또, 서로의 사진을 공유하고 시장도 함께 가는 등 우리 생활의 대부분을 Youth들과 보낸다.

또, 우리가 다하파라를 가기 위한 수업 준비도 Youth들과 함께 한다.





## 4. 우리들의 고민

- 홍수, ICS, End poverty, 클럽, 그린프로젝트,  
다하파라 활동
- 사람에 대한 경계, 언어와 소통, 통역

## 홍수

사바르에서 비리시리 지역에 홍수가 났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고민을 했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거의 해결이 다 되었었다. 하지만, 일주일 후 2차 홍수가 발생하였다. 계속해서 비가 내렸고 우리의 모든 일정은 취소 되었다.

비리시리 YMCA에서도 구호 작업을 도왔고, Youth들도 함께 했다. 하지만, 우리는 안전을 걱정 받는 외국인에 불과 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었다. 비가 그치고, 우리는 홍수피해를 입은 지역을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하였다. 길이 끊어지고, 논이 물에 잠기고, 심지어 집이 무너진 상황도 보게 되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피해가 심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팀원들끼리 공유를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행위조차 그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 걱정이 되었다. '그들에게 우리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가 아닐까'는 생각도 했다.

## 홍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많은 고민이 있었다. 처음에는 모금활동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뭔가를 해주어야겠다.’는 생각만으로 실행한다면 또 다른 상처를 주거나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했다. 더구나 우리는 외국인이라서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주목을 받을 것이고 이들에게 영향도 끼칠 것이라 생각했다.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우리의 행동 하나 하나를 고민하였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 지 많은 고민을 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서의 활동을 전개 해야 할 지 걱정이 되었다. 또, Youth들의 생활공간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이들과 떠들고 노는 것이 민폐가 되지는 않을까, 그렇다고 심각하게 홍수에 대해 걱정하며 함께 놀지 못하는 것도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다. 진지한 고민을 함께 나누기에는 언어의 장벽이 높았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Youth들과 관계와 우리의 생활도 걱정이 된다.

## End poverty

국내훈련 때, '응급처치'라는 주제로 캠페인 준비를 했었다. 하지만, 그 사이 비리시리에는 홍수라는 자연재해가 일어났고 그 주제를 통해 캠페인을 진행 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너무 큰 문제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들에게는 직접적인 구호 물품 전달과 모금 전달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지역에서 외국인이 모금활동을 진행한다면 과연 의도가 잘 전달 될 것인가 고민이 되었다. 피해가 많은 적든 다 같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진행 했을 때, 기부를 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죄책감을 주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었다.

Youth들과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지역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알코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현지총장님과의 미팅을 통해서 방글라데시는 술이 금지된 나라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캠페인을 할 경우 경찰의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비리시리 YMCA가 난처한 상황에 처해 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End poverty

그래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캠페인을 하기로 정하였다. Youth들의 도움을 받아 술을 마시는 가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직접 방문하여 알코올에 대한 문제점과 빈곤을 겪어서 대화하는 방식의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다.

이 방법에 대해서 서로 의견 대립이 있었다. 캠페인이라는 것은 많은 지역주민들과 빈곤에 대해 나누고 의미를 확장시키고, 또 이 지역사회에 빈곤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장이 되어야 하는데 서베이 방법으로 캠페인을 진행한다면 많은 지역주민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캠페인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의견이 있었다. 반대로, 소수의 인원이라도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캠페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이 문제를 End poverty와는 다른 장기적 프로젝트로 진행할 지, 아니면 End poverty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고민 중이다.

## CLUB 활동

클럽의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각자 다양한 생각이 있었다.

클럽을 YMCA로 Youth들을 모으고 더 많은 Youth들과 관계 형성을 하는 장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클럽을 동아리 방처럼 만들어 보자는 의견도 있었고 Youth들과 함께 지역을 탐방하고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활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이들은 지역에 대한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았다. 그렇지만 지역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 할 수 있는 장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 공간을 함께 만드는 건 어떨까 생각한다.

그린  
프로젝트

비리시리에 도착하여 11기의 그린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했다. 6개의 쓰레기통 중 2개가 사용되고 있었고, 그 중 하나도 뚜껑이 닫혀 있었다. 나머지 4개는 창고 안에 들어 가 있었다. 그 상황을 보고 우리는 정말 당황스러웠다. Youth들의 클리닝 활동도 자체적으로 진행 되고 있지 않았다. 전 기수가 체계적으로 진행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보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활동해야 할 지 막막하였다. 현지 총장님께 고민을 말씀을 드렸더니, 쓰레기통 설치 활동으로 시장에 청소부가 고용이 되었고, 매일 청소를 함으로 환경이 나아졌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주민들의 습관이 변하지 않아서 쓰레기통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거라 하셨다.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고민 하고 있다.

그린  
프로젝트





## 다하파라 활동

우리는 주일에 3번 다하파라 NFPE에 교육활동을 위해 가고 있다. 이 곳에 가는 목적에 대해 토론이 있었다.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우리가 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정말 수업만을 위해서 이 곳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품었다. '우리가 이 곳에 오지 않는다면 다하파라 교육 활동은 지속되지 않을 것이고 그럼 정말 일회적인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고민도 있었다. 우리의 활동 자체는 일회적 일지라도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절대 일회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우리가 그들에게 주는 영향은 일회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 수업을 진행하면서 소통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뱅갈어로 전달 하지 못한 점도 있었고, 아이들의 언어를 이해 하지 못하니 아이들의 이해 정도도 모르겠고, 일방적으로 수업이 진행 되었다. 또한 아이들이 싸우는 등 돌발상황이 발생 하였을 때, 우리가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점도 있었다.

## 다하파라 활동

그리고, '다하파라를 꼭 교육활동만을 위해 가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있었다. 비리 시리에서 그린 프로젝트를 생각했듯이, 이 지역에서도 지역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우리가 아이들을 만나고 클리닉 활동을 보조하러 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하파라 지역을 잘 관찰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 한다.

사람에  
대한 경계

방글라데시에 도착을 하고, 외출을 나갈 때 마다 모든 사람들의 집중을 받았다. 우리가 구경거리가 된 기분이었고, 꽃을 파는 아이들이나 걸인들이 다가 올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도 몰라 당황스러웠다. 환경이 낯설어서 그런지 모든 사람들을 경계해야 하고,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였다. 그래서 더욱 외부 활동이 힘이 들었다.

그러나, YMCA 안에서 만난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벽이 허물어진 상태로 다가갈 수 있었으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역 사람들과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YMCA 사람들을 만나려고 온 것인가?' 하는 고민도 들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 우리가 이 환경에 낯설어서 그랬다는 결론을 내렸다. 점점 비리시리가 익숙해지고 나니 처음 만난 사람과도 웃으며 인사하고 지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언어와 소통

도착 후 계속해서 우리는 언어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다. 우리는 Youth들과 회의를 하고 함께 활동을 하는데 언어의 제약 때문에 의사소통에 힘이 들었다.

또, 지금은 대외활동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이해 하는 방법은 Youth들과 대화밖에 없는데, 그 또한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도 아주 기초적인 얘기 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알고 싶은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고 있지 않다. 물론, 영어를 잘 하는 단원들은 Youth들과 영어로 대화를 하지만, 영어와 현지어 둘 다 어려워 하는 단원들은 이들을 만날 때마다 대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 통역

우리는 팀 내에서 통역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다. 통역을 하는 사람은 동시통역이 힘든 상황들이 있었고, 또 통역하는 행위가 상대를 무시하는 것처럼 비춰질까봐 망설여질 때가 있었다. 그에 반해 통역을 받는 사람은 미안한 마음에 궁금한 것이 있어도 물어보지 못했다. 강의의 경우, 끝난 후 들어도 되지만 회의하는 자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했다. 우리가 내린 결론은 서로 오해가 없기로 합의를 한 후 통역하는 단원이 동시통역을 하고 통역을 받는 단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으면 바로 물어보는 것이다. 또 상황이 익숙해져서 서로에게 서운함을 느낀다면 바로 이야기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 하기로 했다.

## 5. 개인 소감

신유식  
(Shapon)

‘쇼폰’, 내가 받은 방글라데시 이름이다. ‘꿈’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한 달 동안의 생활이 하룻밤의 꿈처럼 느껴진다. ‘행복하다.’ 한 달 동안 내가 가장 많이 느낀 감정이다. 나를 믿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팀원들이 있다. 영화 속에 나올 법한 곳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도 좋고 Youth들과 스상강을 거니는 것도 즐겁다. 물론 행복하지 않은 순간도 있었다. 홍수 피해 지역을 돌아보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너무도 큰 무력감을 느꼈다. 피해 받은 분들에게 관찮으시냐고 말을 건네는 것조차 죄송하게 느껴졌다. 그렇지만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팀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은 다시 편안함과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



신유식  
(Shapon)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많다. 우리가 떠난 뒤에 이 지역에 무엇이 지속될까. 하나 분명한 것은 이들의 마음에 사람이 남는 것 같다. Youth들과 ymca 스태프 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 이들은 라온아띠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들은 사람에 대해 얘기한다. 비리시리 지역에서 살았던 아띠들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임병준  
(Ananta)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준비가 없다면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깨닫고 있다. '좀 더 준비해 올 걸'이라고 후회한 것이 한 두번이 아니다. 다하파라 대안학교에서도, Youth들과의 활동에 있어서 정말 부족함만 느끼고 있다. 진작에 벵골어도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된다.

이런 후회들을 떠나 좋은 사람들도 정말 많다는 것을 느낀다. 이곳에서 생일을 맞이했는데, 나라를 위해서, 꼭두새벽부터 준비한 팀원들도, 밤 늦게 컴컴한 길을 뚫고 케익을 사온 Youth들도 정말 고맙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낀다.



송누리  
(Shanta)

9월 한 달은 많은 물음표들이 생겼던 한 달이었던 것 같다. 활동에 대한 고민, '나'라는 사람에 대한 고민, 그리고 지금 까지 나는 어떻게 살았기에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을까. 지금까지 몰랐던 나의 모습을 보는 순간도 있었으며 어떤 모습과 행동이 진짜 나인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사실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내가 했던 고민들과 생각들이 전부 의미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쓸데 없고 필요 없는 고민도 많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살면서 이러한 고민을 하고 하루하루 생각하는 것에 대해 재미를 느끼려고 하고 있다. 처음에는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답을 찾지 못해서 답답했다. 그리고 빨리 정답을 찾고 그 정답에 맞게 살고 활동하고 싶었다. 하지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물음표들은 없었으며 답을 찾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답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이러한 고민들을 행복한 고민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곳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민들이고 이러한 고민들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송누리  
(Shanta)

한달 동안 고민을 하면서 나는 단순히 살려고 온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뭔가를 하려고 온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분명히 훈련을 받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그리고 비리시리 지역에 홍수가 터졌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까지 내가 무슨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온 이유는 없고 왜 왔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내가 활동을 하러 왔다면 지금 나는 이곳에서 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지금 내가 이곳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생활을 해야 할지 길을 잃은 것 같다. 그냥 노는 거 그리고 일하는 거 사실 이렇게 구분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구분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 갈등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지내면서 내가 생각한 사회복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사실 한국에서도 사회복지란 뭘까? 라고 생각하면 내 생각이 아닌 또 정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다. 사회복지란 모든 사람들의 권리고 그러니까 사회복지는 보편적 복지가 되어야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려고 했던 것 같다. 하지만 비리시리에서 지내면서 나는 시혜적인 사회복지란 추구하고 있던 사람 이었던 것 같다. 나는 아직까지 복지를 봉사의 개념으로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본다.

## 송누리 (Shanta)

또 이곳에서 지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이렇게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항상 나에게 '밥 먹었니?', '어때?', '기분 좋아?' 이렇게 질문을 한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대답을 하고 지나갔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나는 먼저 물어 본 적도, 대답을 하고 상대방에게 질문을 한 적도 없는 것 같다. 한국에서도 질문을 먼저 하거나 이렇게 질문을 받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나는 항상 사람을 좋아한다 하고 사람들과 관계 맺음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관심 있는 사람, 나랑 생각이 맞는 사람, 이렇게 나와 맞는 사람을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고 싶은 사람을 좋아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든다.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과 관계 맺음을 좋아한다. 나는 이곳에서 그것을 배워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항상 상대방에게 먼저 인사하고 질문하고 이런 자세도 배워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

정은혜  
(Borsha)

시간이 더디고도 빠르게 지나갔다. 출국 전 너무 고민도 많았고, 힘들었던 시간이어서 이곳 생활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지 못했다. 그래서일까, 여기서의 하루하루가 더 새롭고 신기하다. 먼저, 여기는 시골에서 자란 나조차도 놀랄 정도로 시골이다. 사방 어느 곳을 보더라도 초록이고, 논두렁을 걷는 것이 일상인 곳. 길에는 소와 염소, 닭이 뛰어다니고 있고, 리샤와 자전거들이 클랙션을 울리며 지나다닌다. 아직 동물들은 무섭지만, 자연환경은 정말 아름답다. Youth들과 산책할 기회만 있으면 나가자고 조르게 된다. 정전이 될 때 볼 수 있는 밤하늘과 반딧불이 또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다. 한 달을 생활하면서 '내가 참 편견덩어리였구나.' 깨닫게 되었다. 국내 훈련을 받고 편견을 다 버렸다고 생각 했었다. 하지만 내 말투, 생각, 행동에서 끊임없이 편견이 발견 되었다. 그럴 때 마다 나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미안해지고,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졌다.



정은혜  
(Borsha)

또, 사람 만날 준비를 너무 못했다는 반성이 들었다. 내가 만날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대화할 것인지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계속 이곳에서의 활동만을 고민했었다. 하지만, 비리시리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매일 매일 느끼고 있다. 이들은 '사람' 만날 준비를 하고, '사람'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안다는 것을.

여기서 내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돈노릇'이다. 많은 말로 내 뜻을 전할 수 없기에, 가장 기본적인지만 한국에서는 하기 어려웠던 말. 그 말을 가장 많이 쓰고 있다.

난 정말 많이 배우면서 생활하고 있다. 팀원들에게도, 이곳 주민들에게도, 다하파라 아이들에게서까지 배울 점이 참 많다. 5개월이 지난 후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담고 싶은 모습에 조금은 가까워져 있으면 좋겠다.

---

꺏다한 사진 이야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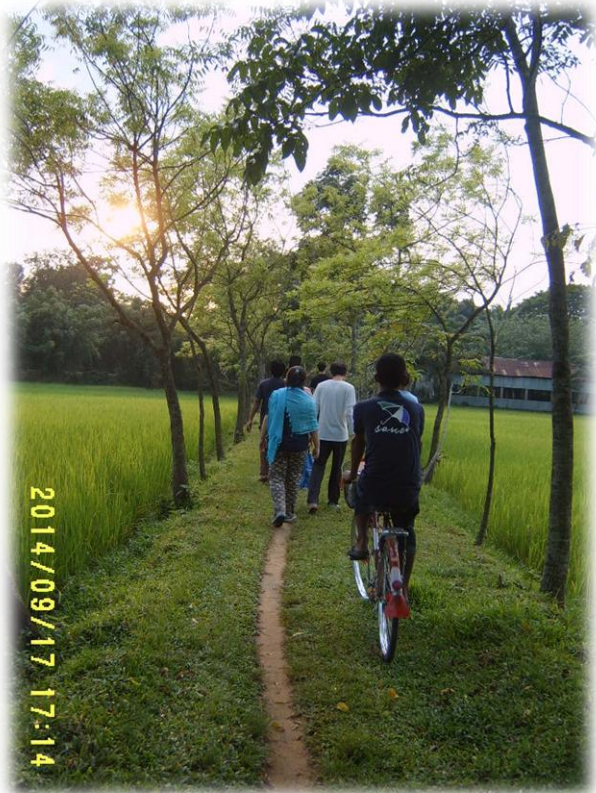












돈노박!)

